

<그림의 탄생>

그림의 탄생! (1)

광포한 역사의 폭력앞에 선
한 여인의 내적 갈등과
순탄치만은 않은 개인사를 한 화면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한 작품이다.

제목: 부서진얼굴 (어머니의초상)

제작년도: 2008

재료: 린넨위에 아크릴릭

크기: 310cmx210cm

소장처: 부산시립미술관

좌/사진자료 우/그림



그림의 탄생(2)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 동란과 군사독재. 압축성장과 소비시대의 격변기를 거쳐서 숨가쁘게 치달려오는 동안 역사의 틈니바퀴에 만물려 가족의 해체와 파국의 상처를 떠안으며 격랑을 헤쳐 나가야만 했던 소시민들의 눈물과 통증의 가족사. 나는 한장의 가족사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절망과 황폐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면의 흥포한 본질을, 해체된 가족사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더 나아가 역사의 뒤편길, 역사의 그늘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또 하나는,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다른 사슬과 상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내가 가족사진 연작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가족사진 연작(1)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나의 가족사진이다. 아래 사진의 왼쪽 아기가 본인이다. 가족사진 연작은 나의 생애를 통해 긴 호흡으로 감당해야 할 작업이기도하다. 내가 가족사진 연작을 발표하기 시작한지 몇 년 후부터인가 중국화가 장샤오강도 유사한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번째/사진자료

두번째/

제목: 가족사진연작1

제작년도: 1980년작

재료: 캔버스위에 유화물감

크기: 162cmx112cm



세번째/

가족사진 연작2

제작년도: 1982년

재료: 종이위에 유화물감

크기: 141cmx131cm



그림의 탄생 (3)

마른들판 저멀리서 이제 막

불기시작한 들불이 온 들판을

태우고 앞쪽으로 번져와 머잔은 시간에

단란한 가족사진마저 불태우고야 말리라.

70년대, 농경사회에서 단계 없이

급 산업화로 옮겨가는 동안

가족들은 이도시로 저도시로 뿔뿔히 흩어져

도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농경사회 오랜 전통의

협업체제와 공동체의식은 사라진다.

국가 경제발전논리를 내세운 강요된 희생과 착취에 의해 개개인의 삶은 황폐화되며

도시 농촌 할것없이 약자들의 삶은 양쪽다 피폐해진다 .



아래 그림은 앞날을 예측할수없는 가족공동체의 불안한 현실을 들판에 버려진 한장의 사진으로 표현해 보았다. 사진의 사각프레임을 허물고 들판이라는 가상의 공간과 결합해 초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여기서 들판은 현재 혹은 현실을 의미한다.

황량하고 매마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파스텔과 색연필을 사용하였다.

제목: 가족사진연작/들불
제작년도: 1980년
재료: 종이위에 파스텔, 색연필
크기: 76.5cmx114cm



그림의 탄생 (4)

한점은 친구의 어머니와 남편이 일본강점기, 강제징용에 끌려가기전 촬영한 기념사진을 그린 것이다. 오래전, 놀러간 친구집 사진첩에서 이사진을 발견했을때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야하는 한 여인의 불안과 슬픔이 나의 가슴을 쳤다.

그 당시 내가 활동하던 미술그룹이 일본 동경의 한 화랑에서 초대전시를 앞두고 있었고 나는 어떤 작품을 발표할까 구상에 골똘해 있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사진을 작품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리라 마음먹었고 사진은 작업실로 옮겨졌다.

나는 작업에 매달렸고 한여인의 절망과 슬픔, 역사의 아픔과 분노를 회화적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1982년, 현해탄을 건너가 작품이 화랑벽에 걸렸을때 일본작가들의 당혹스럽고 착잡한 눈빛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내가 일본으로 건너간 직후 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졌고 한일관계가 순식간에 냉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으리라.

그후 89년에 이 두작품은 프랑스 '카뉴회화제'에 보내졌고 아래 사진중 오른쪽작품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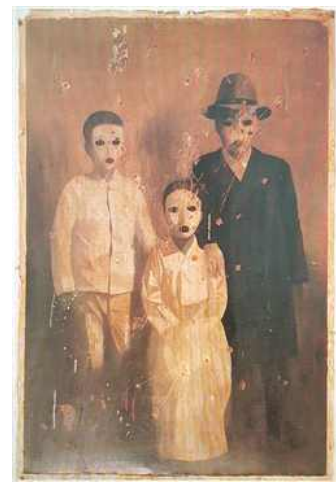
좌/

제목: 가족사진
제작년도: 1982년
재료: 종이위에 유화물감
작품크기: 115cmx76cm
소장처: 국립현대 미술관



우/

제목: 가족사진
제작년도: 1982년
재료: 종이위에 유화물감
작품크기: 109cmx65cm
소장처: 작가소장(도난당함)



그림의 탄생 (5)

부마항쟁!

그때 나의 작업실은 군인들의 잔혹한 만행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항쟁의 중심부 도로변에 있었다. 부산 대청동 미문화원과 문부식 방화사건으로 유명해진 산장여관, 대청파출소와 화실이 모두 지척간에 모여있었다. 살기 어린 눈빛의 군인들은 명찰도 없이, 착검한 총 개머리판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머리가 깨어지고 피투성이로 나뒹구는 사람들, 이놈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분노에 눈이 멀었다. 날마다 최류탄속을 전진하며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치며 싸웠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를 보았고, 그림의 무력함과 화가로서의 자괴감을 느꼈었다. 그러니 최류탄, 지랄탄 연기 자욱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그때,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거리 저거리에서 몇번인가 마주쳤었다.

그때의 부산은 정의로왔다. 근데 지금은 부산이 뿌꾸럽따.

나는 어느날 밤 분노에 치를 떨며,
내가 목도한 지옥의 거리풍경을
쿵쾅대는 통증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격렬한 감정으로, 격렬하게 그렸다.
결코 잊지않게 심장에 문신을 새기듯이.



제목: 그날의 기억.

제작년도: 1980년

크기: 114cmx145cm

재료: 종이위에 유화물감, 제소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 (6)

화살맞은새.(새연작중)

옛부터 어른들은 흰새를 길조나 상서로운 상징으로 생각하며 귀히여겼다. 그런의미에서 화살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흰새는 정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호소력을 가질꺼라고 생각했다. 절망, 슬픔, 좌절. 학대 등. 당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그러했고 직설어법보다 의인화된 우회적 표현 방식이 전달력과 울림에 있어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것으로 생각되었다.



제목: 화살맞은 새.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14cmx79cm

재료: 종이위에 드로잉 잉크, 콘테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 (7)

불타는새!

부마항쟁당시 정의를 위해

스러져간 젊은이들.

나역시 피끓는 나이였으니!

출구없는 벽속에 갇혀 불타는 새!

두려움을 건디며 야만의 폭력과

마주섰든 우리의 젊음들.

나는 그당시 우리의 청춘을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제목: 불타는새(새연작 중)

재료: 종이위에 과슈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09cmx79cm



그림의 탄생(8)

절망의 시대

나는 불사조의 의미를

다른방식으로 해석해보았다.

무자비한 폭력앞에 죽어가는

어미의 가슴을 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무수한 새생명들!

가혹한 폭력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않는

투사들의 희생위에

수없이 돌아나는 정의의 새싹들을,

결코 꺼지지않는 불꽃을 그리고 싶었다.

제목: 불사조2

재료: 한지위에 아크릴릭, 드로잉 잉크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83cmx121cm

소장처: 서울시립미술관



그림의 탄생 (9)

잔혹한 폭력에 죽음을 눈앞에 둔

어미새가 화살이 박힌 목구멍을 통해

흐르는 핏방울을 새끼들의
 입속으로 떨어뜨린다.
 "내 피를 먹고 힘껏 날아가거라!
 그리고 이 잔혹한 야만의 시대를 결코 잊지 말거라"
 역사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민주주의의 꽃 또한 정의롭고
 선량한 이들의 피에 의해 피어나는 꽃이려니!

제목: 불사조1

재료: 종이위에 과슈, 디자인잉크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09.5cmx79.5

소장처: 작가소장



제목: 외치고싶은 새

재료: 종이위에 과슈, 디자인잉크.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09.5cmx79.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0)

이 그림은 시대정신이 깃든 그림이라기보다는 작가 개인의 고독과 상처가 더 많이 묻어나는 그림이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가시나무 가지 사이에 처연히 걸려있는 새 한 마리. 살을 파고드는 가시의 고통.
 사면초가의 심리상태.
 창밖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6월항쟁, 울분과 분노의 외침들.
 안으로는, 엄습한 작업실에 앉아 생활고의 걱정과 화가임으로 짊어져야 할 천형의 고독과
 맛장떠야하는 감성 예민한 젊은 화가의 자아적 고뇌로 몇날 며칠 불면의 밤을 보내며 푸른
 빛 고통의 그림 한점을 탄생시킨 것이다.

제목: 고통받는 새

제작년도: 1987년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기: 130.3cmx97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1)

양평의 첫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 또한 참 많이도 왔었다.
고생고생하다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입시 화실을 접어버리고,
토끼 같은 자식 둘과 아내를 두고
홀로 부산을 떠나와 어렵사리 마련한 서울 작업실 마저 육개월만에 접어버리고,
다리가 없어 비가 오면 섬이되는 마을,
경기도의 동쪽 끝자락 이 꼴짜기까지 찾아와,
스스로 유배당하듯이, 그림을 자초한 것이다.

쓰러져가는 빈집 마루에 짐을 풀어 놓고
마당에 서서 칠흙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별들과 은하수를 바라보며
억겁의 장막속에서 몸서리치는 외로움이, 형벌 같은 외로움이 온전한 형태로 나를 덮쳐 왔을때 비로소 제대로 별을 받는구나 싶었다. 이젠, 피할수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삼십년이 흘렀다.
잘 견뎌낸 것이다.

첫해가 지나가고 또 몇해가 지나간 겨울,
화가는 맹추위에 빛을 잃은 연탄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외로움과 추위와 궁핍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눈덮힌 산천위, 잿빛하늘로 날아오르는 거대한 새한마리를 그린다.

초월한듯 비상하는 새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으나 자신의 인생길을 더욱 당금질하는 겨울이기도 했다.

제목: 겨울새1.2.

제작년도: 1990년

크기: 100cmx80.3cm

재료: 하드보드지위에 천, 유화물감.

소장처: 작가소장.



그림의탄생 (12)

처형된 허수아비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어둡한 방 한구석에 웅크린채 화폭과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다.

엄혹했던 시절, 폭압정치의 짓눌림 앞에서

작가는 관찰자인 동시에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대의 아픔을 증언하느라 밤잠
을 설친다.

먼 훗날 한쪽의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일 일 것이기에 작가는 보다 효과적인 조형어법을 찾느라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이시절, 작가는 이미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독재정권의 관리대상이 된다.

요즘으로치면 특급 블랙리스트에 오른셈이다.

안기부에서 한달에 한두번씩 내려 오는것도 모자라 년지시 국비 유학을 중용하고 대청 파출
소에서는 담당형사가 수시로 화실을 들락되니 어린 두아들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뜻이 바르면 굶힐줄 모르는 성격이라 작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술이 취하면 도청당하는 전화기를 들고 "야이 씨발놈들아! 전화 좀 엿듣지마라!"하며 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것이다.

세계 미술사를 펴고 있을 만큼 지식이 풍부하고 잘생긴 안기부 요원은 들락되는 회수가 거
듭될수록 흔들리는 눈빛속에서 갈등과 고뇌가 읽혀졌는데 이유는 한 젊은예술가의 삶속에서
전해지는 고뇌와 진정성을 여과없이 보고 느낀 때문이라.

어느날, 이 사내는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곤 두 번 다시 만나
지 못했다. 보기 드물게 그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긴 했던 것이다.

그후 연세 많으신 교사 한분이 나를 잡아가기 위한 전초행동으로 미술 교사들 사이에 안창
홍작품을 논하라는 연판장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래봤자 우리가 아끼는 작가를 호락호락 내어줄 순 없었찌!" 하셨다. 덤으로 막걸리도 한
잔 얻어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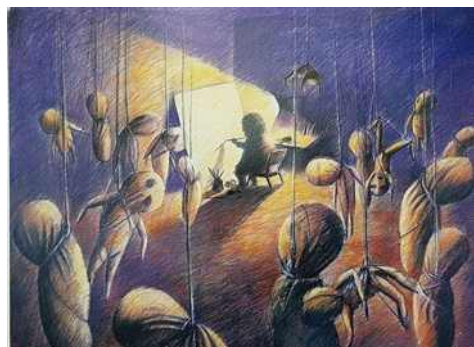
제목: 화실풍경

크기: 109.5cmx79.5cm

제작년도: 1984년

재료: 종이위에 색연필, 파스텔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2)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는 말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외
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이 수없이 잡혀가고 끌려가서 협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잔인한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든,

분노와 자절감으로 길고 긴 암흑의 터널속을 헤매이든 시절.
 그림의 나약함에 괴로워하든 시절.
 그래도 피를 토해내듯 그리기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든,
 돌이켜 보면 터널 저멀리 작은 점처럼 희끄무레한 희망의 빛을 쫓아서 저항과 냉소와 떠거
 운 가슴하나로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세대들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와야 할 가슴시린 청춘시절을
 굴욕과 오욕의 오물더미속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온것이다.
 "마사오야! 두환아! 내 청춘을 돌리다오!"

아래의 그림은 그 굴욕과 오욕의 시절에 고통에 절규하며 인간이기를 원하는 한 인간의 모
 습을 그린것이다.
 화면의 시각적효과를 위해 유화물감의 무거움보다 날카롭고 선명질적인 선들이 도드라져 보
 이는 색연필과 자극적인 색의 가볍고 재빠른 터치를 위해 드로잉 잉크를 사용하였다.

제목: 절규
 재료: 종이위에 색연필, 드로잉 잉크
 제작년도: 1986년
 크기: 109.5cmx79.5cm
 소장처: 작가소장



그림의 탄생(13)

아래 그림은 1986년 현실과 발언 그룹의 6.25주제전에 출품된 다섯 작품 중 한점이다.
 나는 6.25세대가 아니라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사진 자료나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경험한 전쟁의 간접경험을 통해 접근해 볼 수 밖에 없었
 기 때문에 실제 사건보다는 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그려보기로 맘먹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그럴까?

머릿속에서 상상의 무대가 설정되고 전쟁의 참화에 걸맞는 소품들이 화면속에 배치된다. 붉
 은 저녁노을, 추락하는 비행기와 검은 연기. 화면을 가로지르는 지평선 어둑해진 보리밭. 남
 편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아낙의 눈물과 겁에 질린 눈동자, 풀어 흩어진 머리카락.
 등에 매달려 우는 아이. 사내의 덩수룩한 수염과 창백한 이마. 완성 단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지된 컬트 무비의 한 장면처럼 그림은 완성되었고 스스로는 흡족하였다.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작품이 군부대나 예비군 훈련 시 정신 교육시간에 반공교육용으
 로 북한의 도발을 보여주는 영화의 타이틀 배경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의 참
 혹함을 이야기한 그림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줄지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린 그림으로 누
 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제목: 보리밭에서
 제작년도: 1986년
 재료: 종이위에 파스텔, 색연필.
 크기: 109.5cmx79.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4)

아래 그림은 6.25전쟁 연작중 한점이다.
 과거 6.25와 현재(1986년)를 한 화면속에 겹쳐놓고 비교해 봄으로 해서 우리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해 보고자 한 작품이다.

전쟁의 포화가 지나간 화약 연기 가득한 들판엔 이름 없는 용사들의 주검들이 나뒹굴고 그 위로 피고 지는 들풀처럼 세월이 흐른다.

차마 떠나지 못한 망령들이 오늘도 고지 탈환을 위해 사력을 다해 언덕을 기어오르고 그 언덕위엔 화려한 불빛의 대형 광고판이 서있다, 이미 쓸모 없어진 대공포는 기념 촬영을 위한 소품으로 변한지 오래고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여성, 속옷 차림의 선남선녀는 녹슨 철모를 뒤집어 쓴채 엎드려죽은 망령의 등판위에 서서 서로를 애무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넘쳐나는 풍요로움속의 청춘과 이미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든지 오래된 수많은 젊음들의 희생과 억울한 죽음의 망령들을 불러내어 한자리에 놓아보고 싶었다.
 혼재된 과거와 현재(1986년)를 통해서 우리가탄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고 싶었다.

제목: 전쟁(3) 6.25 그리고 오늘.
 재료: 종이 위에 색연필.파스텔
 제작연도: 1984년
 크기: 109.5cmx79.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5)

아래 그림은 위험한 놀이 연작중 한점이다.
 마네키같은 소녀 하나가 푸른하늘을 배경으로 고공 빌딩사이에서 아슬아슬 그네를 탄다. 바라보는것 만으로도 아찔하다.
 빌딩 옥상에선 어른홍내를 내는 어린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진행중이다.
 빨간 망토를 걸친아이가 상대방에게 살인무기인 활을 쏜다, 여기저기서 칼을 휘두르기도 한다, 가면으로 얼굴을가린 익명의 아이가 폭력을 자행한다.

오줌을 갈기는 아이도 있고
 꺼꾸로 하늘 보기를하며
 생식기를 들어내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고
 버려진 소파위에서 부둥켜안고
 어른흉내를 내는 아이들도있다.

백주 대낮,공동체의 규율에서 벗어난 은밀한 공간,
 푸른창공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이들의 섬뜩한 살인놀이.
 얼핏보면 아이들의 병정놀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른들의 잔혹한 폭력현장과 다름아니다.

나는 각종 폭력들이 붓물터지듯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는 당시의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며 위험천만한 아이들의 놀이를 빗되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살인자들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추긴 소비와 향락문화로 인해 광란과 범죄의 도시로 변해가는 이 혼란을 근심스레 바라보며 '이제 시작일 뿐'임을,
 또 다른 형태의 불안한 미래를 나는 그때 이미 예감했었다.

제목: 위험한 놀이 연작(1)
 재료: 종이위에 색연필
 크기: 109.5cmx79.5cm
 제작년도: 1983년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 (16)

7~80년대 부산 화실 동네에는
 맹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특유의 포즈로 탁, 탁 .탁. 탁. 가느다란 지팡이를 좌우로 휘저어
 길을 더듬는 모습들. 그시절 부산의 동광동 부근에 안마 시술소가 많았던 이유는 연안부두
 가 가까워서 배에서 내리는 여행자들 중 일본인들이 많았던 것과 함수관계가 있으리라.

저녁때는 맹인들이 출장 안마를 위해 골목길을 돌며 '빠이 빠이' 단음으로 피리를 분다. 자
 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케 출장 안마까지 나서며 생계를 꾸려갔다.
 살을 에이는 듯이 추운 겨울밤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에 들릴듯 말듯 실려오는 안마쟁이
 피리소리는 참으로 구슬프고 애절했었다.

각설하고 나는 곧잘 대입 시험 준비에 열중해 있는 입시생들 틈에 끼여서 내 작업을 했었
 다. 위험한 놀이 시리즈도 그틈에서 나왔다. 웬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좋았고 작업 시
 간을 벌기 위함 이기도 했다. 그날도 학생들 틈에 끼여앉아서 신문지를 둘둘말아 지지대로
 세워놓곤 학생들이 쓰다만 찰흙 한덩이를 주물럭주물럭 쌓아 올려 낮에 눈여겨 보아줬든 맹

인을 만들었다.

조각가들이 보았다라면 기본도 모른다면 뿔따구를 한참은 내었음직한 방식으로 번개불에 콩
뿔아묵듯이 쓰스스스! 얼렁뚱땅.

완성된 작품을 조심스레 화실 한쪽구석에 세워두고 며칠 말렸다가 조개탄 난로속에 집어넣
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꺼집어내니 황토빛 테라코타가 되어 있었다.

터지지 않고 잘구워진 것이다. 속에서 신문지 재가 쏟아져 나왔다.

생계를 위해 추운겨울밤
안마손님을 찾아
검검한 눈으로 검검한 골목길을
탁,탁,딱,탁.
가느다란 지팡이를 좌우로 두드리며
일거리를 찾아 다니는
맹인여자가 테라코타로
세상에 한점 태어난 것이다.

재목: 맹인

재료: 황토 테라코타

크기: 높이 46cm

제작년도: 1985년.



그림의 탄생 (17)

아래 그림은 달마시안을 그린 것이다.

달마시안은 흰색 피모에 동그랗고 까만 점들이 온 몸에 박힌 늘씬하고 세련된 견종으로 애
완견으로는 매우 인기가 높다.

1994년 어느날 공과금 납부차 들린 은행에서 순번을 기다리며 잡지를 뒤적이다 한쪽페이지
귀퉁이에 실린 달마시안 사진을 바라보며 "잘 길들여진 듯, 그놈 참 멋찌네" '하고 되뇌다
가 문득 이 시대의 화가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종적 눈빛으로 다소곳이 앉아있는 달마시안을 바라보며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의 '멋짐'과 '길들여짐'

그 두 낱말속에 이유가 숨어있었다

본의든 타의든 먹이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의 화가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이작품을 그렸던 1994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당시 화상과 컬렉트와 화가의 관계,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화가들

의 작품 수준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이다.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야성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던져주는 먹이의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인의 취향에 맞게
자신이 스스로를 길들이는,
숙된말로 스스로 알아서 낚이고나 할까.

저항과 분노, 자유정신을 저당잡힌 굴욕의 대가로 받아먹는 고깃덩이의 노예로 전락한
그때의 화가들 모습으로 빗대어 본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건 없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을수도.

그날 밤, 잡지에서 몰래 찢어온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곤 밤 늦도록
달마시안을 한마리 그렸다.
알록달록한 목줄에 묶여서 순종적인 눈빛으로 다소곳이 앉아 먹이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화
랑권 혹은 고객)기다리는 듯 한 모양새를 떠올리며 그렸다.
1994년 그때나 지금이나 먹이사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린것이다.

제목: 아티스트
재료: 종이위에 아크릴물감.
제작년도: 1994년
크기: 119.5cmx79.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18)

1999년 봄 어느날. 개울 건너편에 사는 사슴농장 권이 "안형 뭐해요?"하며 전화를 걸어왔
다. "작업실에 앉아 있어요 왜요?" "우리 농장서 며칠전에 태어난 꽃사슴 기억나시지요?"
"그럼요! 그 이쁜 아기 꽃사슴, 근데왜요?"
"애비란 놈의 발에 밟혀서 다죽어가요ㅠ 의사가 가망없다네요!"
"저런 우쨌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지금, 가져다 드릴테니 그림 그리세요! 꽃사슴 그리고 싶어 하겠자나요!"

내가, 죽어가는 꽃사슴을 그릴려고 밑그림 스케치를 위해 양평서 과천 어린이 대공원 까지
그 먼길을 수도 없이 다니든 일을 잘 알고있는 터라 그런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잠시후, 태어난지 며칠안된 애기 꽃사슴이 트럭바닥에 누워서 실려왔다. 살펴보니 아직 숨

은 붙어있었으나 가뭇은 없어보였다.

"다 그리곤 물어주세요!"

그리고 트럭은 떠나갔다.

나는 흰 광목천을 크로바 꽃밭위에 깔고 그위에다 애기 꽃사슴을 조심스레 뉘어놓았다. 가느다란 다리와 까만유리알 보다는 더 까만 눈동자에 서린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동공을 통해 시신경을 타고 들어와 뇌를 지나 나의 심장에 통증의 바늘이되어 폭 꽃혔다. 아팠다.

꽃들이 만개한 봄날. 따사로운 햇살아래서 이렇게 애절한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니. 나는 스케치를 시도했으나 차마 이성적인 시선으로 스케치할 수가 없었다.

새하얀 종이의 반사광에 눈이 부셔서 그랬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몇번 마음을 달래 보았으나 실패했다. 결국 카메라를 들고 나와 몇 컷 셔터를 눌렀다.

몇컷의 사진을 찍어놓곤 옆에 쭈그리고 앉아 이미 숨이 끊어진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머리를 쓰다듬었다.

더 넓은 크로바꽃 밭에는 흰나비, 노랑나비 몇쌍이 팔랑팔랑 날아 다녔다. 아직 영글지도 못했을 영혼을 데려가려고 온 것일까?

현무명천에 싸놓고 묻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사슴농장 권이 전화를 걸어왔다.

"안형, 꽃사슴 아직 안묻었지요?"

"네!"

"휴! 다행이네 누가 그러는데 중탕으로 내려먹으면 몸에조테요. 금방 가지러 가게요!"

아기 꽃사슴은 다시 트럭에 실려서 황망히 떠나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불상한 애기의 몸값을 내가 지불하고 마르고 별 잘 드는 땅을 골라서 고이 묻어 주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있다. 그땐 진작에 그런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부터 200호 캔버스에 밀칠을하고 프린트한 사진 여러장을 캔버스옆에 붙여두고 에스키스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의도한 주제와 바로 맞닥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도가 가장 효과 적일테니까 그렇게 진행했다. 염을 하는 마음으로 그려나갔다.

그리곤 며칠의 밤낮이 흘렀다. 비참함과 화려함이 함께 떠도는 죽음과 삶, 어둠과 빛의 세계가 서로 부딪쳐서 내는 파열음의 효과를 위해 꽃들은 흐드러질 만큼 화려하게 그렸고 꽃밭 뒤쪽은 어둠이 밀려오는 듯이 표현하였다.

재목: 꽃밭에서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99년

크기: 259.1cmx193.9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 (19)

부산의 동래라는 지역엔 아주아주 오래된 동물원이 있었다. 나의 청춘, 나의 젊음이 녹아있는 부산시절, 마음의 도피처로 나는 이 동물원을 가끔 찾았다. 거의 인적 없는 이른 아침시간을 이용했다. 가능했든 것이 새벽부터 관람시간 전까지 동네 사람들의 산책로로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인적 없이 텅 빈 동물원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관람객들의 번잡한 발걸음들과 소음에 의해 감추어져있던 현실계와 완벽히 분리된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풍경, 초라하기 그지없는 진공의 사각지대. 고독과 우울의 지층이 얼마나 두터운 무개로 덮혀있든지.

이 진공의 세계로 들어서면 야생동물 특유의 누린내가 섞인 아침공기가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진 녹슬고 낡은 창살과 좁은 시멘트 우리와 오줌지린내 속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거나 웅크리고 있었다. 또 시작될 하루의 악몽을 준비하는듯 한 채념과 슬픔의 눈빛.

그 눈빛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잊지 못한다.

비 오는 날이나 울적할 때, 혹은 뭔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을 때. 혹은 그냥 그곳 동물들이 보고 싶을 때, 술에 절은 나는 이른 아침 이 우울한 동물원을 서성였다.

좁은 우리 속 동물들의 몰골과 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막되 먹은 삶인지 자신 스스로에게 반성과 성찰의 물음이 던져졌다.

때론 동질감으로 나 역시 우리 속에 갇힌 듯 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럴 땐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사자, 호랑이, 낙타 등 대부분의 동물들은 너무 늙었거나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회색 늑대한마리는 엉치뼈 양쪽에 총알이 뚫고 나간 관통상의 흉터가 너무 선연했다. 크다란 머리에 온갖흉터와 주름투성이의 숫사자는 생기 잃은 눈빛과 윤기 없이 덩성덩성한 갈퀴털이 보는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암사자는 수명을 다했는지 나중엔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이른 새벽에 찾아 갔었는데 늙은 침팬치 한마리가 페인트가 벗겨진 창살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고향 아프리카 밀림 속 나무 위를 그네 타며 뛰어놀던 찬란했던 그 시절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눈동자는 생각을 따라 먼 곳에 머물러 있는 듯이 보였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그대 아직도 그곳을 꿈꾸고 있는가?

부산을 떠난 몇해 후 양평 작업실에서 불현듯 그 침팬치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당시 찍어뒀든 사진을 설합속에서 찾아내곤 흰캔바스에 스케치를 시작하고

친팬치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을때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을 캔버스위에 되살려 내기위해 애를 썼다.그리고 며칠후 그림이 완성되었다.그리고 이듬해 나무화랑 개인전때 발표되었다.

제목: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제작년도: 1994년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기: 130.3cmx97.0cm

소장처: 작가소장.



그림의 탄생(20)

생각에 잠긴듯 감긴 눈과 굳게 다문 입술, 움켜쥔 주먹을 가슴팍에다 되고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킨다. 살점이 찢겨져나간 손등과 갈라진 입술을 보면 이미 일전을 치루고 난 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될 결전을 앞두고 두려움을 달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한 사나이의 비장한 결의! 표정속에서 긴장과 절박함이 묻어난다.

왜?

무엇 때문에?

누가 평범한 우리들을 거리로 내 모는가?

그땐 너, 나 할 것 없이 다 그랬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민주투사였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최루탄 가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화염병과 깨어진 보도블럭을 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거리 저 거리를 뛰어다녔다.

나는 그림의 무기력함과 화가로서의 자괴감을 폭압에 마주 선 투쟁의 거리에서 되찾아보려 노력했다.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세상,

생존을 위한 세상은 굴러가야 하니

최루 가스문은 옷을 툭툭 털고 화실에 들어서면 학생들 틈에 끼어 앉아

나는, 화가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에 열중했다.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고 기록하기 위해 좀 전 거리에서 만난 젊은 동지들의 비장한 얼굴들을 떠올리며 찰흙을 주무른다. 신문지를 꾸깃꾸깃 뭉쳐서 새워 놓코 그 위에다 흙을 붙여서 가슴팍을 만들고 얼굴을 만들고 눈, 코, 입과 불끈 쥔 주먹을 만들어 가슴팍에 붙인다.

그리곤 며칠 동안 잘 말려서

발갡게 달아오른 조개탄 난로속에 집어넣으며 기도한다.

터지지 말고 제발 잘 굶혀서 나오기를.

그렇게 한명의 민주투사가 완성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먼 미래의 좋은날을 위해
이 젊음을 던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평범한 이웃청년의 모습이!

제목: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료: 테라코타
제작년도: 1998년
크기: 25.5cmx43cmx17.8cm
소장처: 작가소장.



그림의 탄생(21)

며칠전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영화에 대한 평은 유보해 두겠다.
장면 장면마다 좀더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다.

내가 영화를 보며
눈시울을 적셨든 이유는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 감정이 이입되면서
오랜 동안 애써 묻어뒀든 트라우마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졌기 때문이다.
기억들이 슬픔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꽃같은 청춘들의 고통스런 죽음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영화속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감독의 촬영 태그닉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영화 후반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며 찍은
스펙타클한 다큐 장면들이었다.

이한열 열사의 노제로 광화문거리를 가득매운 슬픔과 분노의 물결들.
한 마음으로 뭉쳐진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결코 용서 받지 못할 자들을 향한
분노의 함성들이었다.그속에
가슴 뭉클함이 있었다.

그 장면들 위로 수많은 촛불들이
겹쳐지면서
눈물이 방울로 툭 떨어졌다.

제목: 고통의얼굴
재료: 테라코타
제작년도: 1988년
크기: 22cmx36cmx1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22)

2016년 강화도에 있는
절(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다)에서 '성찰'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있었다.
그때 출품된 변형8호이다.

세월호 침몰로,
국민들 중 대략 30%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와 무기력함으로
자책하고 있을때 였다.
나 역시 사는데 사는것이 아니었다.
출품 날짜가 닥아오니
캔버스앞에 앉아서
빠른 필력으로 드로잉하듯이
한점 그렸는데
바라 보노라니 온전한 정신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성찰이 아니라 자학의 고통을
그려놓은 것이다.
죄 의식의 검은 불꽃과
분노로 터져버린 심장과 피눈물.

제목: 붉은눈물
재료: 천위에 유화물감
제작년도: 2016
크기: 변형8호



그림의 탄생(23)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
현실의 굴욕을 팽개치고
내린 '또한번의 선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부산을 떠나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들어온,
열 한 가옥이 전부인 양평의 작은 마을.

아침이면 안개 자욱한 뚝방길을 걷고
밤이면 칠혹의 마당에 내려서서
광활한 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너무 찬란해서 눈이 시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환경에 익숙해져 갈수록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고독감은 건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 건디어 내야만 했다.

마당 풀썰에서 발견한 나무 등치하나.
며칠전 장만한 전기톱으로 기본형태를 만들고 폐가 부엌한켠에 쌓여있는 고물더미 속에서
발견한 녹슨 식칼로 쪼아내듯이 내리쳐서 세부형태를 다듬어갔다.

난생처음 만들어보는 나무 조각.
재미를 느끼며 집중했더니 며칠만에 그럴듯하게 한점 완성이 되었다.
나중이라도 갈라질까 염려스러워
부엌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소금물에 푸욱 삶아서 잘 말린 후 색을 칠하였다.

굴욕의 삶에서 탈출은
성공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극복되지 않는 고독감.
가족 부양에 대한 근심.

조각상은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가까스로 승리의 팔을 들어올리는
'상처투성이의 승리자'를 상상하며
만들었다.
그렇게, 녹 쓴 부엌칼을 수도 없이
내리쳐서 만들어낸 조각상을

찬찬이 바라 보노라니
다름 아닌 내 자화상 이었다.

제목: 승리자의 팔
재료: 나무
제작년도: 1989년
크기: 18cmx53cmx12cm
소장처: 작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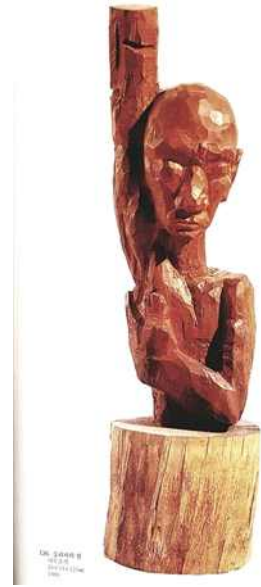
그림의 탄생(24)

부유해 보이는 유한마담 곁을
이름도 멋진 아티스트'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아티스트'에게 드디어 늘 꿈꿔왔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티스트'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넉넉하고 풍족한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아티스트는 늘 연습해 온 대로
주인이 흡족해 할 자태로
우아한 세련미를 풍기며 다소곳이
눈빛 연기를 한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다.

굶주림과 궁핍에서 탈출 성공!

이골목 저골목을 헤매이며
쓰레기통을 뒤지든 시절
'생사' 랄것 까지는 없고 암튼,
고락을 같이하든 거리의 동지들과도
이젠 결별이다.
거칠고 무뎠던 한테다 길들여 지지 않은
야성의 상태라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자신의 주인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젠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안에서
재주부리는 대가로 받아먹을
먹이의 양에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다.
자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티스트를 떠나보낸
 개1,개2,개3,개4,봉달이,달봉이,
 메리,워리,몽치등등의 무리들은
 아티스트'가 부럽지만
 또 한편으론 꼭 그렇지도 않다.
 "먹이를 위해 재주를 부리느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이대호가
 훨 낫다!"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듯
 크게 외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서로에게 들키지않게
 부러운 감정을 맘속에 감춰둔다.
 솔직히 다들 부럽긴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떨쳐 버리려는 듯
 다시 한번
 "난 결코 저렇게 살지 않을꼬야!"
 하고 함창 하듯이 외쳐본다.이번엔
 소리가 모기소리 보다 더 작다.

"밥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을
 우리는 지키려 하고 있잖나!"
 "'근데 밥보다 더 소중한게 뭐지?"
 구시렁 구시렁 소리와 함께
 개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지고
 막이내린다.

- 갈등없이 피는 예술은
 속없는 찌뽕이고 쉬 지는 꽃과 같다.
 갈등을 딛고 피어나는 꽃이라야
 아름다움이 더욱 오래가는 것이다.-

제목: 유한마담과 아티스트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기: 194cmx97cm
 제작년도: 1997년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25)

부산을 떠나와 양평에 정착하기 전 약8개월간 동지를 틀었던 서울 화곡동 시절. 인사동서

전시라도 있는 날엔 동료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퍼마시다 보면 마지막 버스를 놓치기 일쑤다. 그럴땐 택시를 타고 신촌으로 이동 후 화곡동이 차고지 인 택시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술이 어정쩡하게 취한 정신으로
작업실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닥 다닥 붙은 카페 촌,
불켜진 곳을 찾아 문을 밀고
들어가 맥주를 시킨다.
그 동네 카페들 대부분은
아주 작아서 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데 그 시간엔,
텅빈 술집에 홀로 앉아있는 주인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기 일쑤이다.

스텐드 바 안쪽 벽에 비스듬이
기대어 앉아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얼굴.
정수리 위에서 내려비치는
할로겐 불빛 때문일까?
그날따라
눈그림자와 짙은 속눈썹에 가리워진
쉴쉴하고 지친 눈빛이 더욱
애잔해보였다.

불나방들처럼 찾아와 청얼대는
남정네들의 주정과 욕정의 눈빛,
맘 없는 농담에 섞인 유혹과 허튼소리들.
너나 할 것 없이 도시 셀러리맨들의
고단하고 외로운 절름발이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어루만짐과 매출 사이에서
적당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내야하는
고단한 삶이 묻어나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 나는시간.

파리한 이마와 지친 눈빛속에 드리워진 깊은 외로움.
약간 흐트르진 자태와 조금 몽글어진 루즈자국.
신촌 어느 카페의, 이국적으로
생긴 이 여인을 그리기 위해
나는 어느 사이 관찰자가 되어
자료수집 차 맨 정신으로

몇번 인가 더 들렀었다.

제목: 여인의 얼굴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86년

소장처:개인소장



그림의 탄생(26)

이 그림은 그림의 탄생(25)'여인의 얼굴'을
완성한 얼마후에 짝으로 그린 것이다.
이 말은 두점이 모여 한점이 된다는 뜻이다.

나는,

여인의 고단한 젊음과 덧없는 세월의 벼랑에 선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나란히 놓고 시각적
환기를 음미해 보고 싶었다.

이미 완성된 여인 옆에 놓여질

노인 얼굴을 어떤 모습으로 할까? 하고

궁리하든 중 콜라주 자료를 위해 모아둔 잡지더미를 뒤적이다

페이지 한쪽에 박혀있는 흑백사진에

눈이 꽂혔다. 더더 찾은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찌니!"

참고한 사진을 바탕으로 내 의도에 맞게

얼굴을 변형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정치적 접근법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의 승업함과 실존에 방점을 찍고 다소 서정적으로 그려나갔다.

다 완성하고 보니 푸른빛을 배경으로

깊은 슬픔을 참고 있는 듯 표현되었다.

회환에 잠긴 듯, 아니면 누군가를

떠나 보낸듯.

기쁠때나 슬플때나, 심지어는

아플때 조차 감정 표출의

방식에 익숙치않은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들,

멀고 먼 황토인생길을 걸어오느라

이미 말라버린지 오래인 가슴을 적셔오는 푸른빛 슬픔!

그 슬픔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림은 작가의 생각과 바로미터이니
 그때 나의 가슴 속에도 뭔가 모를,
 표출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으리라.

제목: 노인의 얼굴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86년
 크기: 60.6cmx50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28)

나는 그 시대의 정서를
 이렇게 기억한다.
 굴욕과 모멸의 시대
 고통과 야만의 시대
 분노와 저항의 시대

제목: 고통의 손
 재료: 닥종이, 탕자나무, 아크릴릭.
 제작년도: 1987년
 크기: 실물크기
 소장처: 분실



그림의 탄생(29)

연일 메스컴의 머릿기사로 장식되는
 동계 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득 몇해 전 드로잉한
 작품이 생각났다. '남과 북'의 관계를
 '남과 여'의 관계로 풀어본 작품이다.

앞의 정부가 공력을 들여 애써
 이루어 놓은 햇볕정책을 까뭇개버리고,
 양쪽 주장들이 화해 무드로 맺어 놓은 약속들까지 헌식짝 버리듯이
 파기해 버리는 콤플렉스 덩어리,
 질투대왕 이명박 정부의
 행위들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해도 너무 하는군!이건아닌데"
 싶었다.

밖으로는 오로지 반공 이데올로기로
북한을 자극하고 겁박해서 뿔따구를
내게 해야만 정권이 유지되었든 정부.
안으로 일어난 일들의 고약한 부분들은
요즘 한창 들추어 지고 있으니
좀더 지켜 볼 일이다.

암튼, 2010년 그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남북 평화무드를 안타까워하며
지켜보든 차에
문득 작품 내용이 떠올랐고
"애잇! 생각이 달아나기전에
그림이나 한점 그려놓차!" 하고
시작한 작품이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듬직한 덩치에 옆구리와 팔뚝에
문신을 새겨넣은 건달 혹은
양아치 같은 얼룩무늬 바지의
남자가 남쪽.
알몸으로 남자에게 상의를
얻어 입었거나, 빌려입은 듯,
슬리퍼 끌고있는 여자가 북쪽.

큰 덩치에 위압적인 자세로
내려찍을 듯이 찌려보는 남자의
시선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턱밑 바로 아래에서 얼굴을
지켜들고 양갈스레 찌려보는 여자.
암튼 그때 남과 북의 관계가
내눈엔 이렇게 보였다..
언젠가는 꼭 화해 해야 할
고약한 관계의 오누이처럼.

라인 드로잉으로 마감한 이그림은
이듬해 대구 봉산 문화회관
초대 개인전 때 발표되었다.
(실재 모델들을 세워두고 사진 촬영 후 참고하여 드로잉하였다)

제목: 남과 여
재료: 광목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2011년
크기: 자료찾아바야댐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0)

화가에게 그림은 무엇이며
그림의 사회적 역할은 또 무엇인가?

씨잡떼기 엄는 생각들로 시간을
적이고 있을때 1999년의 개인전
일정이 잡혔다.
영양가 엄는 생각들은 일단 접어두고
전시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째 골똘히 생각하며
떠오르는 낱말들을 메모지에 적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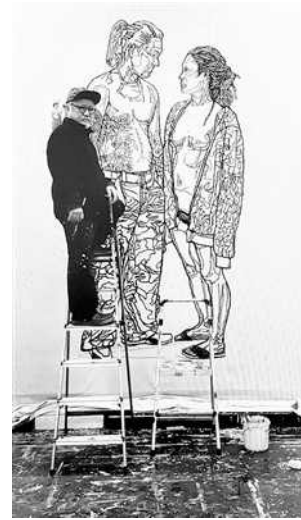
권력, 자본, 욕망, 배설, 쾌락, 죽음 등등

위에 낱말들은 메모지에 어지럽게
적힌 것들 중 그럴듯 해 보이는 낱말들을 대략적으로 골라서 몇자 간췌려 본 것이다.
(부실한 내 기억력을 믿을 수 있다면)

다음으로 취할 행동은 낱말들을
곱씹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습하고
고약한 냄새들을 나만의 조형어법으로 풀어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풀어 본 빼딱한 내용들 중 하나가 아래 그림이다.

소 영웅주의에 빠진 안창홍이
세상에 싸지르는 똥 세레!

홀로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것이 발 아래로 내려앉고 눈 높이엔 하늘밖에 없다는것을.
중력의 무게 만큼이나 무거운 외로움이 어깨를 짓 누른다는 것을.
이 외로움을 나는 '천형'이라 부른다.
작가는 이 '천형'의 외로움을
견뎌 내야만 한다.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간혹 혹은, 늘 세상을 원망하며 판지 걸 꺼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꺼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천박한 자본주의와 경박한 세상에,
자본과 결탁하여 예술의 질과 가치를 부의 높낮이로 등급을 매기는 저급하고 빈곤한 문화풍
토에,
아랫도리를 벗고 똥을 싸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돌산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했다.

'무지개 똥=그림'

그림은 화가의 배설물이기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작 과정이 좀 힘들었다.
엉거주춤 웅크린 자세를 그리기 위해
대형 거울을 이젤 옆에 세워두고 수시로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관찰해야 하니 정말이지 죽을 맛이였다.

이작품은 그해 인사동 두군데의 화랑에서 동시에 치뤄진 개인전 중 한곳에서 발표되었는데
그때의 재미?난 에피소드는 담 기회로 미뤄둔다.

암튼 이 작품은 다음해 부산개인전때
눈 밝은 콜렉트에게 팔려나갔다.

제목: 화가의 똥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99년
크기: 194cmx97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1)

1999년, 개인전을 앞둔 나는
권력의 속성을 그림으로
풀어보고 싶었다.
'권력'이란 낱말에 사고력을 집중했다.
'권력'이라는 상징성을 어떻게
이미지로 연결 시켜야 하나?
이 시대(1999년)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탐욕과 파렴치함을 '권력'이라는 상징성과 어떻게 오버랩 시켜야하나?
생각 끝에 떠오른 낱말은 '똥과 파리'였다.
이 두낱말들 보다 서로 잘 어울리는

짜이 또 있을까 싶었다.

끈질기고, 집요하고, 불결하며,
세균과 질병을 옮기고,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는 꼴이 파렴치한
정치 모리배들의 노는 꼴과
영락없이 닮은 모양 아닌가!

꽃차도 꽃차도 끈질기게 달라 붙는 똥파리의 습성,
먹거리가 있는곳 이라면 어디든지,
악취가 진동하는 곳을 더욱 좋아하는,
그당시 권력자들의 하는짓 꺼리들이
'똥'에 오글오글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이랑 별반 다르게 없어 보였다.

캔바스에 밀칠을하고
막상 한마리씩 그려 나가다 보니
파리를 그리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어쩔것인가! 시작을 하였으니 끝장을 볼 수밖에.
결국은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고장이 나고 만것이다.

잘 접혀지지도, 잘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을 걱정하며
손가락 전문병원을 찾았더니
의사선생 왈, 수술밖에 길이 없단다.
큰일이 난 것이다. 수술하러 갔다가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나와 버렸다.
그리곤 떠도는 소문에,
용하다는 봉사 침장이 할아버지를
찾아서 시골 먼곳까지 달려갔다.

인정사정 없이 손가락 마디를
관통하며 파고드는 침이 어찌나 아프든지 눈물이 찼끔찼끔.
그래도 차도가 있으니 참을 수 밖에,
그렇게 먼길을 와따 가따하며
어렵사리 그림은 완성되었다.

고생 끝에 완성시킨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해 볼것도 없이 제목을 '권력'으로 정했다. 작품과 제목이 합쳐져서
비로소 완전한 합일체가 되는 그림.

형식야 어떤들 뭘 상관이라!

작품은 1999년 개인전때 발표되었다

그림속에 까만점 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적인 형태로 날개와,다리.머리와 몸통, 그림자까지 비교적 세밀하게 그려진 파리들이다.

한여름, 팬티만입고 달라붙는 파리를 쫓으며 수천마리의 파리를 그리느라

비지땀 흘린것을 떠올리면

끔직한 지옥의 한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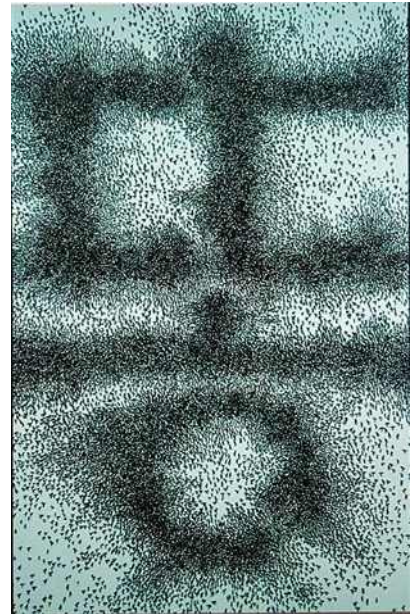
제목: 권력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99년

크기: 259.3cmx193.1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2)

오래전 화랑 두곳에서 동시 개인전이
치뤄진 적이있다.

전시 내용들은 '죽음, 권력, 욕망' 등에
대한 사적 사유의 접근과 해석이었다.

전시할 작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작업실엔

발표를 앞둔 작품들이 쌓여갔다.

,화가의 똥, 권력, 꽃밭에서, 혀와 혀, 등

처음 계획했던 주제들에 맞추어진 작품들이었다.

나름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었고

나 스스로도 매우 흡족한 상태였다.

개인전을 제의 받았을 때 화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품을 생산해 내는 것,

그일 외에 할 수 있는게 뭐가 또 있겠는가?

화상 또한 화가의 땀과 열정으로

생산된 작품들을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작품이 화랑 벽에

걸리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아주 황당한 꼴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전시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과
자존심이 여지없이 박살 나버린 순간.

화랑 두곳 중 한곳은 상업적이지 않는
내 그림을 오히려 좋아 했지만
한 곳은 돈 안되는 그림을 들고 왔으며 화가의 면전에다 대놓고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문제에 대한 좀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다)

순간 화가의 머리속엔 이런 생각 스쳐갔다,
나의 작품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시 제의를 했을텐데,
"이럴꺼면 초대전시를 왜 한거지?"
나에게서 뭘 기대한거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혈압이 '급' 상승했다.
직선적인 성격을 누르지 못한 나 또한 화랑주 면전에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그후 한달 남짓 전시기간 동안
나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았다,
마지막 날 작품 챙겨서 보내달라는
전화 한통이 관계의 끝이었다.
그후 오며 가며 화랑 앞을 늘 지나쳤지만
전시 관람을 위해 화랑문을 열고
들어서기까지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스스로에게
용서를 허락하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가지 밝혀 둘것은 그 화랑에
전시되었든 작품들이 대부분
2, 3년 사이에 다른 화상들을 통해 수집가들에게 넘어갔고
지금 내결엔 단 한점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 전시가
상업적으로도 그리 나쁜 전시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그화랑과 나 사이에 인연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에게 표출한 감정의 방식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다른 작가들과는 좋은 인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듯해
보이니 그 화랑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고 싶지 않다.

암튼, 화가가 실험정신과 파격적 내용을 자신감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은
화상들의 해안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스스로
그런 기대심리에서 탈출한지 오래이니
배짱 편하고 자유스럽게 내길을 갈 수 있는 것이리라.

믿음과 기다림, 미래를 위한 투자.
수집가들의 안목을 끌어 올리는 일까지,
통크고 밝은 눈을 가진 확신에 찬,
체력이 뒷받침된 화상이 대한민국 미술관에 두루 존재한다는것.
정말 요원한 일 일까?
사대주의에 눈먼, 장삿속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닌 대화상들 말이다.

아래 그림은 두곳 전시장 중
다른 한곳에서 전시된 작품이다

제목: 홍창안이 안창홍을 찌려보다.
재료: 종이위에 아크릴릭
년도: 1998년
크기: 79cmx110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3)

전두환 정권은 군사독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포츠, 칼라TV, 두발, 교복 자율화,
통금해제, 성개방 등,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위한
정책들을 마구 쏟아 내었고
그것을 계기로 발전한 음성적인
문화는 계속 이어져갔다.

기생관광과 매매춘이 만연하든 시대,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룸싸롱들,
너나 할것없이 엄청나게 술을 퍼마시든 시절.
술과는 사촌지간인 향락 문화를
통과의례처럼 여과없이 탐닉하든 시절.
그러케 우리 모두가
밤문화에 몸과 정신을 쫓게치면서 까지
현실의 울분을 잊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욕망과 쾌락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든 좌절의 시대,
황폐한 정신과 혼돈의 시대,
대로위엔 난무하는 최류탄과
이 한열의 죽음, 민주화의 열망.
뒷골목 어둠속에선 넘실되는 욕망과
쾌락을 향한 절망의 몸짓들.

'애정없는 섹스와 비릿한 정액냄새가
묻어나는 거리.'

인간의 본성 저깊은 곳에
억눌려 있든 욕망이
소진할 곳을 찾아
분출되기 시작하고,
집단 무의식이 도덕과
윤리를 뒤엎기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깊고 음습한
쾌락의 나락에 빠져
달콤한 죽음의 키스에
혀를 빼앗겼든 시절.

나는 한동안 작품을 위해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 구상에 골똘했다.
애정도 사랑도,거추장스러운.
오직 불태워야 할 욕정을 위해서
욕체당이 만 서로 엉겨붙은
남녀의 차거운 애무장면을,
욕망에 매몰된 우리들의 모습을
'1991년의 인상'중 하나로 떠올렸고
곧바로 에스키스를 시작했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
 때마침 연인과 놀러온 후배에게
 포즈를 취하게 한 후 사진 촬영했다.
 덕분에, 남녀의 모습이 그 후 결혼한
 후배 부부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만지는듯.
 그러나 애로틱해 보이지 않게,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들로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화면 전반을 울트라마린 계통의
 불루를 많이 섞어 칠하여
 우울하고 침잠된 내면이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다.

피부에는 약간의 온기를,
 눈빛은 깊고 고독하게.
 인체의 전반적인 형태는
 선뜻 발견되지 않케 기형화시켜서
 화면전반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

제목 : 우리도 모델처럼3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리릭.
 제작년도: 1991년
 크기: 90.9cmx72.7cm
 소장처: 작가소장.



그림의 탄생(34)

1994년, 한쪽에서는 모든것이
 넘쳐나고. 과소비와 향락의 물결이
 넘실되든 시절. (지금은 더욱 길게 드리워진 빈부격차의 악순환)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위에서 보릿고개의
 굶주림에 허릿띠를 졸라매야 했고
 겨울의 혹한을 체온에 의지해
 견뎌내야만 했던 우리 부모들 세대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순종적으로 따랐든 군사독재시절.

박정희의 시대가 근검과 절약이 미덕이었다면,
전두환때 부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시작된다.
더욱 악랄해진 노동력 착취와
빈부의 차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토지 개발과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생겨난 뽀빠부르조아들의 등장,
부의 대물림과 과소비 주체의
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신흥 제벌 2세대들.

강남의 특정 지역은 소비의 대명사로.
그곳의 환락가는 불야성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이고 강남 대로는
면동이 트고 난 뒤에도 술과 약에 취한 젊은이들의 비틀 걸음과
여기저기 나자빠져있는 모습들,

출근길, 혹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만원 버스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 봐야만 했을
수많은 도시 생활자들,
하루 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1994년 어느날의 출근시간
강남 대로에서 우연히 마주한
아침 광경은 나 또한 처음 접하는
생경 하고도 놀라운,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병든 우리 삶의
아픈 단면 이기도 했다.

그 광경은 한동안 내 기억속에서
멤돌다가 좀더 발전된 생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시절에, 그런류의 젊음들을
대표하는 신조어 '오랜지족'을
그려보고 싶어진 것이다.
물려받은 부를 마음껏 탕진하며
또다른 세계의 탐닉에 젖어서 살든
신 부류들.

이데올로기 적 시선이 배제된,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단순히 그려보기로 했다.
내속에도 내제되어 있을 또 하나의 본성,
'욕망의 모습' 일수도 있는
어떤 모습을,

빨간바지와 초록색 실크 스쳐,
붉은 입술과 귀거리.한쪽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듯이
움켜쥐고 있는, 남성정보다는
오히려 여성성이 더 느껴지는 청년.

마치 유혹이라도 하는 듯,
관람객과 거리낌 없이
눈을 마주하는, 이 청년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머릿속에서 완성된 그림을
수도 없이 지우고 다시 그리며
강남의 밤거리를 며칠간
쏘다녀야 했다.

특정한 모델을 세워두고
그린 것이 아니라
강남 밤거리에서 술하게
마주친 젊은이들의 인상을
종합해서 스케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를 둔 상상화라 할수있다.
삼십호? 한점을 먼저 그렸는데
썩 흡족하지가 않아,
몇달 후에, 얼굴을 달리 표현해서
큰 캔버스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제목: 오렌지빛 청춘 2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94년
크기: 110cmx89.5cm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5)

70년 후반부터 '가족사진'
'기념사진'등의 제목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연작들은
나에겐 생애를 투자해서
완결로 향해 가고 있는 각별하고
애정어린 작품들이다.
(위의 연작들을 한데 묶어서 '아리랑' 연작이라 부른다)

역사의 주체이면서도 정작 역사의 장속에서는 부재한 평범한
사람들의 빛바랜 사진들을 통해
우리들의 험난했던 근,현대사를
겹쳐 보는 것에서 부터
'아리랑' 연작은 시작된다.

아래 그림은 2012년 개인전때
발표한 '아리랑' 연작들 중 한 작품인데,
6.25전쟁 직전에 찍었을 법한
사진을 유화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사진 속 색동저고리의 어린 소녀앞에
전개될 예측 가능한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역사속에 이미 기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회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진속 화면의 소녀를
중심으로 제 구성한 것이다.

소녀를 애워싸고 있는 전쟁전야의
불길한 징후와 광포한 전쟁이 활기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검은 연기와 총탄자국들,
공기속에 떠도는 화약 냄새를 통해서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진
민초들 삶의 단면을 들추어내고,
민족적 비극인 6.25전쟁의 참화를
한 소녀의 가냘픈 어깨위에
내려 놓아 보고 싶었다.

사진속 소녀를 통해서
통한의 과거와 미래에 닥쳐올 광기와 야만,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인물에 눈을 감긴 이유는
우수와 연민, 비애감 혹은 내면으로
침잠된 시각적 효과를 통해

'기념사진'이 가진 고유한 정서를 뒤집어
존재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제목: '아리랑'2012'10
재료: 캔버스위에 유화물감. 드로잉잉크
크기: 116.4cmx74.5cm
제작년도: 2012년.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37)

불 타는듯이 만개한
붉은 꽃들사이에
한아름이라고 말하기엔
과할 만큼의 꽃다발을
안고 서있는 소녀.

스스로 유배당하듯이 고립된
공간을 찾아 흘러 들어온 이곳,
선바위 마을에서 마주한 자연은,
때론 숭고하게 때론 잔혹하게
나를 감동과 고통의 벼랑길을
끝없이 기어 오르도록 몰아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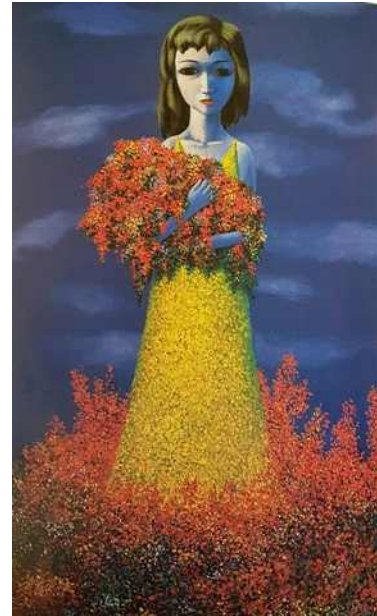
칠혹의 어둠과 은가루를 뿌린듯이
빛나는 별들. 들판가득 흐드러진
야생화들, 마른바람의 울부짖음.
천둥과 번개, 폭우, 지루한 장맛비.
핏빛 단풍들과 겨울 들판의 삭풍,
애간장을 끓여놓는 소쩍새 소리.
덧없는 세월과 몸서리치는 고독.
고독만큼 잔인한 고문이 또 있으랴!

나는 무언가 지독한 것을
그리고 싶었다.
고독과 씹박질하는 동안
갈라 터진 가슴과
말라버린 눈물,
속에서 치받아 오르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지독한 아름다움. 사랑, 파멸, 순정,
덧없음, 사금파리처럼 뽀쪽하고
날카로운, 선병질적인,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런 감정의 이입을
그리고 싶었다.

아래 그림은 그때 그린 그림 중 한점이다.

제목: 꽃밭에서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기: 89.4cm x 130.3cm
제작년도: 1992년
소장처: 개인소장.



그림의 탄생(27)

결핍과 상실의 시대,
끝이 보이지않는 긴터널속을
헤매이든 시절. 1992년 어느날
그날도 인사동 골목길 부산식당엔
이른 시간부터 낮익은 화가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도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생태탕과 모두부 한접시를 시켜노코 너댓명이 둘러앉아 여러
병의 소주를 마셨다.

"아지매!" 여기 옥수 좀 더 부어 줘요 미안합니다" "고마바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옥수를 몇번더

시킨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낮술은 빨리취하는 법.

다들 취기 어린 걸음으로 어둑해진 거리로 나선다.

제갈길로 사라진 동료들, 홀로 남은 나는

불량한 습관 때문에 으스스한 골목길을 찾는다. 전단지가 어지럽게 붙은

전신주에 기대서서 흔들흔들 불일을 보며 벽에 어지럽게 붙은 포스터들을 훑어 내려가든 중
시선이 머문자리.

그 자리엔 까만 배경 위에

청춘 남아 흑백사진이 콜라주된

연극 포스터 한장이 너들되며 붙어있었다.
술취한 내눈엔 포스터 속 남녀의 자태가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여자의 하반신을
껴안고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청년과 그 청년의 좌절과 외로움을 감싸안는듯 어깨에 내려놓은 여자의 창백한 손.

동질의 절망과 슬픔을 서로의 체온으로 어루만지는 듯.
조악하게 연출된 사진이라 더욱더
극적인 애절함이 묻어났다.
비틀되는 1992년의 어느날 어스름.
지금의 내기억이 맞다면 포스터 제목이
"우리에게 또다른 정부가 있다!"
였을 것이다.

나는 이시대(1992년)의 맘 둘곳 없이
아픈 청춘들 모습을 지린내나고
너저분한 골목길, 너절한 벽보판 귀퉁이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그들과 다를바 없는 내 모습 또한
그 곳에서 발견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쓰린속을 대충
달래놓고 난 뒤 어제 봐두었던
포스터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때의 감정을 상기해 냈다.
그리곤 대략적인 에스키스를 했다.
포스터를 참고로 그때 느꼈든
이시대(1992년)의 사랑,
폴잎같이 애달은 사랑을 그려나갔다.

여인을 좀 더 가련하고 애처롭게
하기 위해 파리한 어깨와 가슴을 노출시켰다.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리도록 하기위해 주안점인
머리카락에 다 엑센트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얼굴은 깊고 우울하게 만들기위해
가면처럼 눈동자를 없애고 짙은 그늘로 표현했고, 손 역시 사실적인 묘사보단
관절의 꺾임을 무시한 가벼운 형태가 나올듯했다.

블랙에 가까운 푸른색 배경의 연극무대 위,
갑자기 비춰진 불빛조차 의식하지
못한 듯, 두 젊음의 절박하고 비극적인 포옹.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 방울처럼,
설령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맞이하게 될 비극의 종말.
끝간데 없이 깊은 슬픔과 체념을
표현하려 나름 노력을 기우렸다.
그렇게 시대의 초상 한조각을 그려냈다.
이 그림은 다음해 1993년 금호 미술관
초대 개인전 때 발표되었다..

제목: 풀입사랑1
재료: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제작년도: 1992년
크기: 89.4cmx130.3cm
소장처: 개인소장

